

“영산강 살리기...하굿둑 개방이 해법”

4대강 사업 이후 오염 가속화·생태계 파괴 ‘죽음의 강’으로
죽산보 상시개방으로 해결 안 돼...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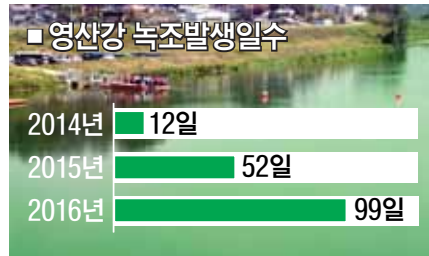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 이후 ‘죽음의 강’으로 급속하게 변해가는 영산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영산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큰 영산강 죽산보 등 4대강 6개 보(水)에 대한 상시 개방 지시를 내린 것을 계기로 영산강 하굿둑 개방 재논의 등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2조원을 들여 강바닥을 파내고 4대 강 물길을 가로막는 16개 보(낙동강 8·한강 3·금강 3·영산강 2)를 건설했다. 당시 ‘대운하 공약’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셌지만 2012년 ‘4대 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걸고 공사를 강행, 완공했다. 이후 영산강은 해마다 녹조로 뒤덮이게 되는 등 오염이 가속화됐다.

지난 22일 기준 물환경정보시스템을 보면 승촌보(광주)의 경우 지난 2012년 용존산소(mg/L)가 12에서 13.4,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9에서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6.2에서 6.7로, 죽산보(죽산)는 11.3에서 14.1, 4.9에서 5.9, 1에서 9.3으로 각각 증가했다.

보 설치 이후 영산강 수질은 더욱 악화됐고 생태계는 파괴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4대강 일부 보에 대한 상시 개방 지시를 내리면서 영산강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강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정부 환경정책 기조가 전환됨에 따라 영산강 살리기 마스터플랜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에선 전남도가 지난 1981년 축조한 영산강 하굿둑의 개방 여부에 대한 정밀 검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강의 생태계·수자원 확보·보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 철거와 재자연화’,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보강’ 등 개방 수준과 방법을 정하는 마스터플랜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시·도민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종합적인 영산강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택 의원은 23일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주변 시·군이 참여하는 영산강 유역 행정협의회, 수계관리위원회 등 역할 분담 방안을 정립하고 학계, 환경단체, 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영산강 살리기 시·도민 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선 6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 과제로 영산강 재자연화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했지만 가시적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1981년 하굿둑 축조 이후 수질이나 생태계 악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문제점 진단, 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 중”이라며 “연구 용역은 1단계로 내년 6월까지 해수 유동 영향 분석과 환경조사를 진행하고, 2단계로 내후년까지 수질개선, 생태복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구치소표 올림머리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장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인번호 503’ 박근혜 첫 재판...18개 혐의 모두 부인

53일 만에 모습 드러내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관련기사 2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도 직접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며 18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최순실씨 측에 제출된 3가지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

롯데그룹 회장 측도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3가지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

기업 출연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동기가 없으며 ▲최순실과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형사사건으로서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사사로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총리 인준 팬 이전 탄력 ‘글로벌 스마트시티’ 속도



문재인 시대
광주·전남 현안 점검

<5> 광주 군공항 이전

문대통령 적극 지원 약속

후보지 7~8곳 압축된 듯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광주 군(軍) 공항 이전 사업이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인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전 부지 선정 작업 등이 제 속도를 내기 주목된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시 군공항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최근까지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전 후보지를 물색한 결과 시 지역을 제외하고 7~8곳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 후보지 시·군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광주시는 후보지가 걸리면 적극적으로 전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에 나설 계획이다. ▶2면으로 계속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 전남지사가 총리 인준을 받게되면 이전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군 공항을 포함한 광주공항 이전을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자체 비용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현재 공항 부지는 친환경 전기차 공유도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산업단지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

당장 이전 지사가 지사직을 물러나면 시 군 공항 이전지역인 전남도가 애초 예상보다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인 만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놓고 전남도 내 시·군 및 주민 간 갈등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전 주변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광주시는 해당 후보지 시·군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광주시는 후보지가 걸리면 적극적으로 전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에 나설 계획이다. ▶2면으로 계속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대통령 “노무현의 꿈 부활, 다신 실패 않을 것”

8주기 추도식 사상 최대 인파

1만5천여명 ‘임 행진곡’ 제창

고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엄수됐다.

<관련기사 3면>

정권이 교체되고 처음 맞는 추도식이어서 1만5000여명의 사상 최대 인원이 몰렸다. 이날 추모행사 전체 참석 인원은 5만여명이 된다고 노무현 재단 측은 밝혔다.

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도식에서는 먼저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공식추도사를 읽었고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집 안내해설을 맡은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대표로 추도사를 낭독했다. 1004마리 나비 날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된 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문 대통령의 추도사가 이어졌다. 이어 추모공연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www.joytour.kr

무안출발 일본여행

이 가격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친 특가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발하는 일본여행
이제 무안에서 출발하세요~!

<주말 출발> 항공 왕복 2박3일 큐슈여행 ♪

기간:5.12~6.6

- 1.뱃부, 유후인, 아마가세 온천편견
- 2.뱃부, 유후인, 일본 전통료칸
- 3.기타큐슈, 야마구치, 시모노세키
- 4.기타큐슈, 가라츠, 우레시노

- 1인 ₩499,000~
- 1인 ₩699,000~
- 1인 ₩699,000~
- 1인 ₩699,000~

<평일 출발> 선박+항공으로 떠나는 큐슈여행 ♪

- 1.(매주 수요일 출발) 선박+항공 북큐슈 3일
- 2.(매주 화요일 출발) 선박+항공 북큐슈 4일

- 1인 ₩299,000~
- 1인 ₩399,000~

★불포함사항 : 기사, 가이드 경비(₩30,000/인), 국내수송(₩35,000/인)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NAVER 조이투어 검색

TEL:062-234-3222 FAX: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대표이사 최금환



여행정보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항공 및 전철버스 / 상의요구권 환불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영업보증보험 가입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